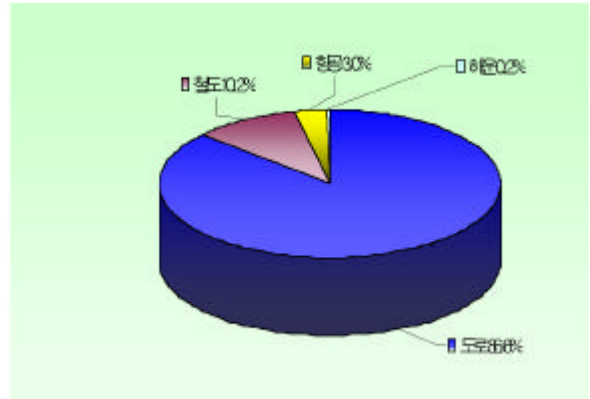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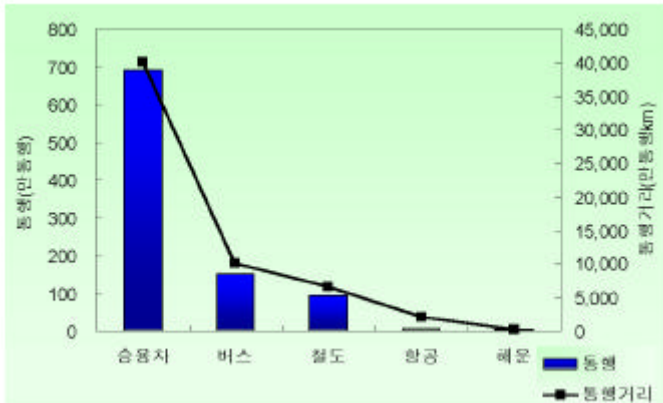


화물차, 화학제품 운송비율 21.7%

건교부, 여객·화물 실태조사 발표 ... 도로 수송 분담률 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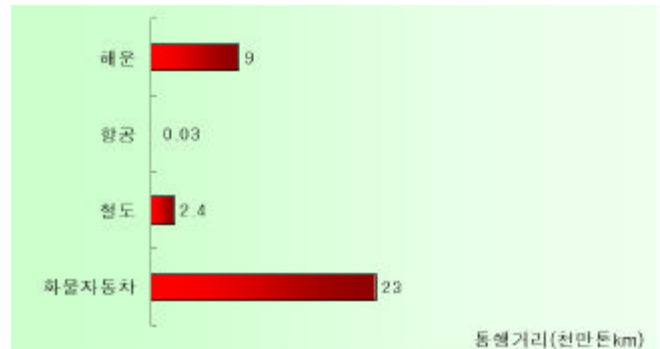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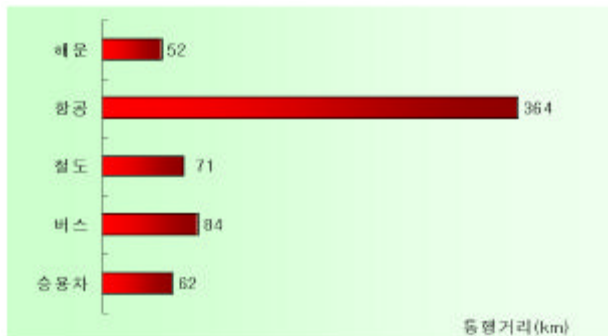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도로가 담당하는 수송분담률이 8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간 여객 및 화물의 통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로의 수송분담률은 86.6%로 승용차 67.1%, 버스 19.5%를 나타냈으며 철도는 10.2%, 항공은 3.0%, 해운은 0.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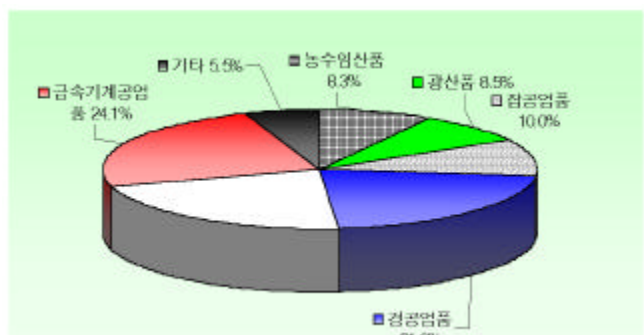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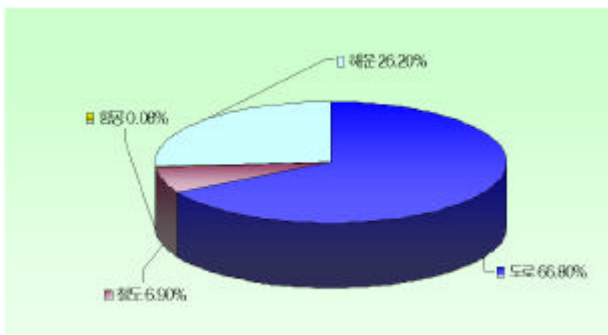
도로 수송분담률이 61.9%와 73.0%를 차지하는 일본, 프랑스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수단 의존률이 지나치게 도로 교통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1일 지역간 교통인구는 총 938만명(통행)으로 1인당 평균 68km를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통수단별로는 승용차 이용인구가 690만명, 버스 148만명, 철도 92만명, 항공 5만3000명, 해운 2만3000명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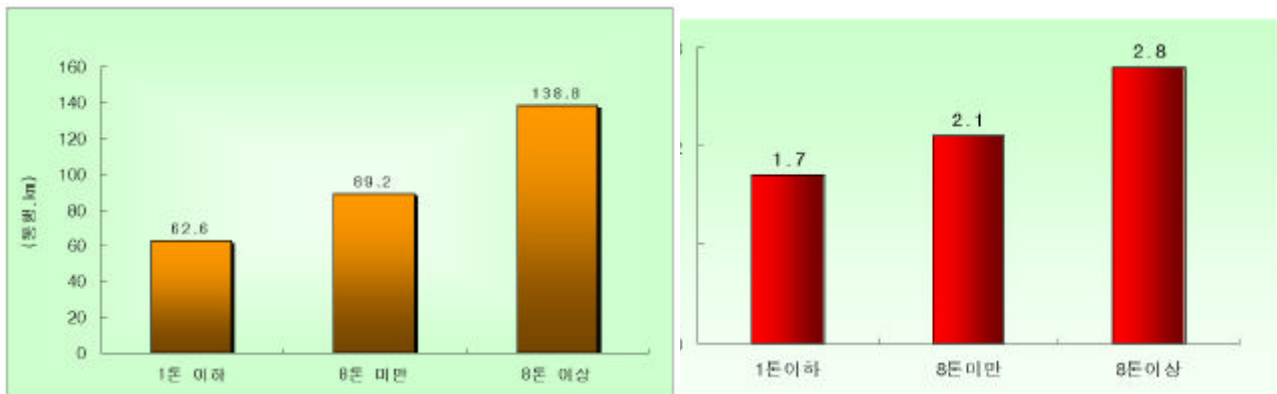
통행목적은 업무통행이 전체의 36.1%인 337만통행, 여가통행이 18.2%인 171만통행, 출근·통학·귀가·쇼핑 등이 45.7%인 430만통행으로 분석됐다.

수단별 통행거리는 항공 364km, 버스 84km, 철도 71km, 승용차 62km, 해운 52km 등이었다.



화물은 하루 지역간 전체 물동량이 287만톤이었으며

이중 화물차 244만톤, 해운 32만톤, 철도 11만4000톤, 항공 800톤을 각각 차지했다.



화물자동차의 1일 평균 운행거리는 77.4km, 평균 운행시간은 1.9시간이었으며 주로 금속·기계공업제품(24.1%), 경공업제품(21.9%), 화학공업제품(21.7%) 등을 운송했다.

전국 지역간 통행료 자료는 전국교통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kotib.re.kr)나 건교부 수송물류정책과,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구축센터를 통해 공개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3/ 11>